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죽왕면 시민기자
최돈불(choi3789100@hanmail.net)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김태극, 백옥식

※간성·죽왕·토성에서 발생하는 아기
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
민기자를 모십니다. <문의 : 681-1666>

무릉도원 농촌개발사업 첫삽

농어촌공사 영복지사 지난 11일 안전지원제 개최 ... 27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영복지사(지사장 최돈환)는 지난 11일 토성면 무릉도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직원, 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릉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안전지원제를 지냈다.

무릉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토성면 일원에 권역활성화센터와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아틀비위 주변 정비사업을 비롯한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민을 위한 농산물전시장 체험공간(도자기 체험활동 비누 만들기, 목공예, 서예) 등의 판매,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12월까지 하천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 및 정보화센터, 교육장소 등 역할을 담당하는 권역 거점시설로 거듭나게 된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지난 11일 토성면 무릉도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에서 안전지원제가 열렸다.

백옥식 시민기자가 만난 사람 / 성공한 귀농인 김종권씨

“농업은 도전해볼 가치 있는 분야”

“처음 귀농했을 때는 적지 않은 투자비 부담으로 농업에 대해 반신반의 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인내를 가지고 일해 온 결과 성공을 향한 자신감이 증만해졌습니다.”

토성면 운봉리 김종권씨(36세, 사진)는 부산 태생으로 34세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 2009년 가족 모두가 고성에 정착한 귀농인이다.

김씨는 평소 농업에 관심이 많은데다 시골생활을 동경해 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귀농하게 됐다고 한다. 서글서글한 외모와 늘 웃는 표정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세대 농업 경영인이다.

2009년 귀농하자마자 토성면 성천리에 450여평 규모의 톱밥표고 재배단

지를 조성해 3년째 운영하고 있다.

또 2010년에는 토성면 운봉리 떡바우골 마을 2천평 면적에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해 모목 2천주를 심고 시설재배를 통한 블루베리 생산에 정성을 쏟고 있다.

‘참좋은 농부’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김씨는 톱밥표고와 블루베리 재배를 통해 성공 귀농인으로 발돋움하며 도약을 꿈꾸고 있다.

김씨는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귀농하기보단 넉넉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농업에 대해 젊은 일꾼들이 패기를 가지고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경영을 꿈꾸는 젊



은이들에게 먼저 경험한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군에서 농업인교육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판로개척과 사후관리 등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백옥식 시민기자

간성 김밥천국

김밥·분식·식사류

모든 메뉴를 포장·배달해 드립니다

681-9999

간성·죽왕·토성 광고 문의
☎681-1666~7

4월 11일 OPEN

개

장수영양탕

업

메뉴 영양탕 전골 ※닭도리탕·황태전골은 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
무침 추어탕

저희 업소는 국내산 고기·쌀·김치만 사용합니다



20여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제가 고성군청 앞 골목길 근처에서 '장수영양탕'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푸짐하게 내놓겠습니다.

대표 우 옥 기

☎681-6010

※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영업합니다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은 쉽니다

